

#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적·사회적 능력\*

The Effects of Children's Elementary School Entance Age and Sex  
on Cognitive and Social Abilities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천희영

Department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Associate Prof. : Chun, Hui Yo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s of children's elementary school entrance age and sex on cognitive and social abilities. The subjects were 80, the same number was selected by elementary school entrance age(5-year and 6-year) and sex. Their cognitive and social abilities were measured by Intelligence Maturity Test and Revised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6-year-old children had higher perceptive ability of sameness and calculation ability than 5-year-old children. Girls also had higher IQ and language concept than boys. 2) 6-year-old children's communication, socialization, and total social abil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5-year old children. Girls' communication and total social abil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boys.

The implication was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consider children's social ability if their entrance age were decided. In addition, 'Early Entrance to Elementary School' system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point of children's developmental adaptation.

1) 본 연구는 1996년도 고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동안 양적인 면에서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오늘날 21세기로의 전환기를 맞아 미래 정보화·세계화 사회의 신한국인을 길러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같은 오늘의 교육을 과감하게 수술하여 신교육체제로 탈바꿈 하고자는 취지에서 1995년 정부는 신교육체제를 구상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교육개혁 위원회, 1995) 중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 교육 운영부분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안'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만 5세 아동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 및 능력검사 결과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학교의 수요능력 범위 내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안은 많은 토의를 거치면서 입학조건이 변화되어 부모가 원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5세 아동 입학규모 및 생일제한 범위 내에서 생일 순으로 입학하도록 바뀌었고, 96학년도 5세아 취학 지원자 수는 총 정원 1만6천8백여명 중 5천 7백여명으로 정원의 약 34%가 지원한 것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96년 3월 4일 잠정 집계 발표했다(조선일보, 1996, 3, 5).

이같은 5세 아동 취학 지원의 결과는 조기교육 열풍 속에서 조기 취학에 쏟아지는 주부들의 관심이 대단치 않다는 보도(조선일보, 1996, 2.16)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상과는 달리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같은 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도가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어 조기입학에 관한 부모의 인식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과연 부모들이 취학시기에 관한 교육제도의 자율성 부여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들을 인식하여 조기입학에 따른 부작용과 자녀의 부작용을 걱정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또는 월반제의 실시에 따른 대안적인 교육기간 단축의 방법을 인식하

고 굳이 조기입학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인지 등 여러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조기입학에 관한 부모와 사회의 요구를 접하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초등학교의 교사 뿐 아니라 조기입학 여부를 최초로 결정하고 조기입학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부모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조기입학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 입학기준 못지않게 조기입학 결정을 위한 경험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은 취학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5세 아동의 선별 방법과 수용범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간의 교육적 연계성, 아동의 발달적 적응의 세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이기숙, 우남희, 김현자, 김창복, 1995; 임연기, 1995). 그러나 전자의 두 가지 문제점의 경우 적절한 심리측정의 방법 모색과 교육적인 방법과 환경 조건의 개선을 통한 실제의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입학시기의 선택과 같은 아동의 교육계획을 위한 중요 준거로서 우선 아동의 발달적 적응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처음으로 5세 조기입학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조기입학을 특별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허용한 경우, 5세 조기입학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발달이 6세 입학 아동과 차이가 있는지 발달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조기입학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능력이 6세 입학 아동의 능력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자각하고 입학신청을 했을 것이므로, 조기입학 아동들의 능력이 6세 아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추후 조기입학 제도의 적용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아동의 발달적용을 평가한 발달의 평가 영역은 전형적으로 인지적 능력 즉 학업성취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Crosser, 1991; 서옥석, 1991). 이같은 현상은 초등학교에서의 주요 발달 과업이 균형성이고(Erikson, 1950), 인지적 기술의 균형한 획득 결과가 학업성취도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실제 방법이 학업 성취

를 평가하는 지필검사의 지향 경향과 평가 결과의 서술화에 따라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천희영, 1996). 또 초등학교 입학 초기라는 단기간에는 학업성취의 다양한 방법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으며, 학습을 위한 기초 능력과 학습능력 자체로 지능을 개념화 할 수 있다면, 학업성취도보다는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조기 인지교육을 통해 조기입학에의 요구가 높아졌고(이기숙 외, 1995), 이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서도 조기 인지발달의 문제가 강조된 바 있다(임연기, 1995). 자녀의 인지발달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자각은 자녀의 실제 인지능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박성희, 1986) 하더라도 자녀의 인지적 능력에만 의존하여 조기입학을 결정할 때 자녀가 전인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 목표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의 중점은 공통적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태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 것(교육부, 1993)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적응을 평가하는 주요 영역의 하나는 사회적응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다. Evans(1974)의 조기 입학 아동의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동료 수용정도와 자아지각(Spitzer, Cupp, & Parke, 1995), 그리고 인기도(서옥석, 1991)로써 입학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평가한 것 외에 관련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들 연구 역시 아동의 폭넓은 사회적응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응적 변인을 달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아동의 초등학교에서의 발달적응은 입학연령 외에도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즉 Crosser(1991), Uphoff, Gilmore와 Huber(1987)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취의 영역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 서옥석(1991) 역시 이같은 결과와 함께 인기도에 있어서는 성차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동료관계에서의 사회적 발달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평가하였을 때도 성에 따른 차이가 없을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에 관한 비일관적인 보고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Kurdek, 1982; 심진섭, 1993; 한성희, 1985). 따라서 만약 아동의 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입학연령 변인과 함께 아동의 조기입학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성에 따라 인지적·사회적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와 교사에게는 물론 이 제도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성에 따라 아동의 인지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 2)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안'의 목적과 문제점

'5·31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안'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의 확대를 일부 기본 특징으로 하는 신교육 체제 내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초·중등 교육의 목표를 바꾼다는 배경에서 도출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즉 급속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인지적 능력이 높거나 조기 발달된 5세 아동을 획일적인 교육체제 속에 묶어두기 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개인적 능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조기 입학과 함께 속진(acceleration)의 한 방법인 월반제를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이길택, 1991)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안이 갖는 공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이기숙 외, 1995; 임연기, 1995).

먼저 조기입학 아동의 선별 방법과 수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5세 입학 허용 여부를 인지적 발달 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신체적 발달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세 아동의 능력 판별을 위한 타당한 방법이 모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타당한 능력 판별 검사가 개발되더라도 인지능력 중심의 검사가 된다면, '인성교육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유아교육은 과행적으로 운영되고 조기과외의 소용돌이가 염려된다. 또한 5세 취학 아동과 6세 취학 아동 및 그들 학부모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학교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입학을 허용한다면 지역간 학교 수용 능력의 차이가 큰 현실에서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간 교육적인 연계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연속적이고 계열적인 발달의 연속성(developmental continuity)에 의해 초기 아동기 내내 아동의 학습은 전조작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사회적·정신적·신체적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경험, 반성적 활동(reflection)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적 연속성에 대한 관심은 일찌기 19C 말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의 경우 1940년대·50년대 초등학교 무학년 단위(nongraded units) 제도의 도입, 60년대 말 Follow Through 계획, 70년대 발달적 연속성 계획(Project Developmental Continuity: PDC)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이어졌다(Barbour & Seefeldt, 1993). 여기서 주목

되는 점은 이러한 계획과 시도들이 일부 우수 아동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보다는 아동의 능력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5세 아동을 선별적으로 조기 취학 시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의 개별화된 학습과 생활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기 보다는 유치원 공교육 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세째, 발달적 측면에서 5세 아동의 입학안이 갖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요즈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은 충분한 영양섭취, 발달된 과학적·매스컴의 정보 접하기 또 사교육을 통한 조기 인지교육 등에 의해 소위 '온실효과(hothousing effect)'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안은 현실성 있는 교육 개선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별달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이 시기에는 개인차가 두드러지게 되므로 입학시기의 차이가 큰 발달적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지적인 발달 면에서 발달단계 자체의 향상을 실제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 발달도 가족 환경의 변화로 집단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드러난다.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하여 또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의해 입학이 허용된 5세 아동이라 할지라도 부적응을 나타낼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어서 결국 비교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Kamii, 1990). 이같은 이유로 Bracey(1989)는 지각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K학년 집단에서 최연소자라면 오히려 입학을 늦추어 다음 해에 그 집단에서의 최연장자로 입학시키는 경향을 지적하고, 이를 'K-학년의 유예(graying of the kindergarten)'라는 용어로 표현한 바 있다.

## 2. 선행연구

Cole(1919)의 연구에서 비롯된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인지적 능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1940년대 까지 초등학교에의 입학자격과 학업성취를 위한 정신연령 규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Cole(1919), Bigelow(1934) 그리고 Hobson(1948) 등은 아동의 정신연령이 적어도 6세 이상이 되어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에 더 유리하고 덜 노력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Elkind, 1987).

1950대 이후에는 일반학급(regular classroom)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측정치인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입학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Carter(1956)와 Dewitt(1961)(서옥석, 1991, 재인용), Green과 Simmons(1962)에 의하면 일반지능을 지닌 아동들에게 같은 학교 경험이 주어질 때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학문적 성취에 유리하였다. Baer(1958)는 IQ 검사로써 아동의 능력을 통제하고 초등학교 11년간의 누가기록으로써 성취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나이든 아동집단이 일부 학년에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어린 아동들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학업성취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이는 전체 연구대상 아동의 IQ 평균이 평균 이상의 수준이었고 아동 집단간의 생월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입학 평균연령이 72개월과 81개월인 두 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lleke(1969)는 조기입학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읽기, 쓰기, 종합언어, 종합성취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74개월 이하 연령에서 입학한 캐나다 아동들도 학문적 성공보다 실패의 비율을 높게 나타냈으며, 특히 그들 연령에 부적합한 학습과제를 부과했을 때 읽기 문제나 학습장애가 발생 또는 악화된다고 Andreas(1972)에 의해 보고되었다(서옥석, 1991, 재인용).

소위 '여름 아동(summer children)'으로 불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연령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말 주목되었다(Crosser, 1991). 6학년 때 Comprehensive Test of Basic Skills로 성취도를 측정한 Sweetland과 DeSimone(1987)는 월령을 3개월 단위로 구분한 4 집단을 대상으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지 가장 어린 10월~12월생 아동 집단만이 나머지 집단들과 유의하게 낮은 성취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여름에 출생한 아동들(5세에 K학년 입학 아동)은 세 번째로 어린 집단으로 분류되었었고 더 나이 많은 두

집단들과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Elkind(1987)에 의하면 3학년과 6학년 아동 중 여름에 태어나 5세 입학한 아동은 남녀 모두 6세 입학한 아동보다 평균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인 아동의 비율이 50%정도 낮았다. 또 Crosser(1991)는 7~9학년 학생 중 6월~9월 사이의 여름에 태어나 5세와 6세에 입학한 아동들을 성과 지능에 따라 짹지은 후 이를 총 45쌍의 아동들에게 성취검사와 능력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동의 성에 관계없이 나이든 아동(6세입학)이 어린 아동(5세입학)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또 능력검사의 읽기능력 측정에서도 6세 입학아동이 5세 입학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여아와 달리 남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나 능력검사 점수가 입학시기 결정의 부분요소이긴 하지만, 여름 출생 남아의 경우는 1년 늦게 입학하는 것이 아동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phoff와 그의 동료들(1987) 역시 남아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ickel, Zigmond와 Strayhorn(1991), 그리고 Breznitz와 Teltsch(1989)는 저학년의 학급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동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즉 입학연령이 낮은 아동보다 학업면에서 더 성공적이지만, 그 성취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다해도) 적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3학년이 되면 줄어든다는 것 (Shepard & Smith, 1986)이 보고된 바 있다(Spitzer et al., 1995).

우리나라에서는 서옥석(1991)이 6학년 남녀 아동 각 160명을 대상으로 입학연령을 3개월씩 4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5년간의 학업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월령이 높은 아동이 1, 3, 5학년 때 국어, 사회, 산수, 자연의 모든 과목에서, 특히 6개월 이상의 월령차이가 있을 때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아는 남아보다 국어와 자연과목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산수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입학연령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관해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소수의

선행연구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입학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성 변인을 통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성에 따른 차이가 있고 그것은 학업성적이나 능력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입학연령과 학교 사회적 적응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서 K학년과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 평정에 의한 사회적 행동 및 아동 자신의 자아지각 특성을 조사했던 Spitzer와 그의 동료들(1995)은 K학년에서 극단적으로 나이어린 아동이 교사평정에 의한 사회적응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1학년이 되면 그 차이가 사라지며 더욱기 K학년에서도 아동 자신의 자아지각이 부정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는 어린 아동이 결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않다는 Bickel과 그의 동료들(1991), Breznitz와 Teltsch(1989) 등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음의 연구들은 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주목되었다. Evans(1974)는 아동의 입학연령이 낮을수록 행동문제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즉 조기입학 아동, 보통 나이에 입학한 아동, 늦게 입학한 아동의 순서로 행동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서옥석(1991)은 사회적 적응도를 아동의 인기도로써 평가하였다. 인기도에서 남녀 모두 입학연령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 결과를 얻고, 대인관계 및 사회성 발달정도는 월령보다 개인의 성격 및 정서발달과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이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후자는 동료간 대인관계 중심으로 사회적 발달을 다루었으므로 대인적 관계의 발달 뿐 아니라 개별성의 발달 측면(김경희, 1986)에서도 사회적 발달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적응행동을 개인적 사회적 자력을 위해 요구되는 입상적 활동수행 행위라고 정의한, Harrison(Sparrow, Bella & Cicchetti, 1985, 재인용)의 입장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의에는 적응행동이 연령증가에 따라 증대되고 복합적으로 된다는 원칙, 개인의 적응행동의 적절성은

함께 상호작용하는 타인의 기대 또는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조정된다는 원칙, 개인의 적응행동은 잠재된 능력보다 일정한 행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수행하는 수행행동에 의해 평가된다는 원칙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장면에서의 적응행동을 Harrison의 정의에 따라 평가하는 '사회적응 행동검사'로써 심진섭(1993)은 아동의 사회적응 행동 수준이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5세 아동보다 6세 아동의 적응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Evans(1974)와 서옥석(1991)의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입원 초기에 남아보다 여아가 더 잘 적응한다는 Hughes, Pinkerton과 Plewis(1979), 원영미(1989)의 연구 등(신혜원, 송혜진, 우현경, 이윤선, 1996)을 참고할 때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에 있어 성차의 유무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아동은 부산광역시 내 8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아동 중 5세 입학아동 40명, 6세 입학아동 40명으로 모두 80명이었다. 입학연령별 남녀 아동의 수는 동수였다. 5세 입학아동의 월령 분포는 68~75개월이었으며, 6세 입학아동의 월령분포는 81~88개월로 입학연령간 최소 월령 차이는 6개 월이었다.

#### 2. 연구도구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 2, 3학년용 지능성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김혜옥과 김한수(1993)가 개발한 지능성숙검사를 임의도, 이인수, 조석호(1994)가 개정한 것으로 언어개념, 동일성, 분간력, 유사성, 연관성, 산수력, 기억력 등 7개 하위영역에, 언어개념은 2개, 나머지 하

위영역들은 1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신뢰도는 반분 신뢰도가 .90~.95로 보고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89~.96의 범위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응행동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응행동 검사는 Sparrow와 그의 동료들(1985)이 개발한 '바인랜드 사회적응행동 검사(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를 이영자, 이종숙, 양옥승(1987)이 우리나라 취학전 아동에게 맞게 수정한 검사도구이다. 총 192개 문항 중 평가 영역별 문항의 일부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또 평가 영역별 하위영역에서 질문이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항은 제외하여 144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육심리학 전공교수 2인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5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이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필수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네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해력, 표현력과 관계되는 의사소통, 개인생활과 공동생활 및 대인관계에 관한 일상생활기술, 놀이와 여가시간 및 대처기술에 관한 사회화,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운동에 관계되는 운동기능의 4개 영역이며 영역별로 23~5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alpha$ 값은 영역에 따라 .85~.90으로 나타났다.

검사 반응자인 아동의 담임교사가 각 항목에 따라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에는 관찰점수를, 관찰한 적이 없는 것에는 그 아동에 대해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수행정도를 평가하여 평정 점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문항별 점수는 0점에서 2점까지로 '항상 그렇다'에는 2점, '가끔 그렇다'에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0점이 주어졌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아동학을 전공하는 4명의 검사자를 대상으로 지능성숙 검사의 실시를 위한 사전훈련

을 함으로써 실시에 따른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되었다.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의 허락 하에 특별 활동실에서 지능성숙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 1인당 검사 소요시간은 약 35분이었다. 사회적응행동 검사는 담임교사가 해당 아동에 관해 반응하도록 하여 일괄 회수하였다. 교사당 반응 아동 수는 최대 2명이었다.

###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지능성숙 검사의 하위영역별 총점을 산출하고, 대도시 규준에서 해당되는 지능지수를 구하였다. 사회적응행동 검사의 경우, 하위영역별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사회적응행동 검사에서도 제시된 규준은 있었으나, 검사문항을 수정하였고 규준 집단의 연령과 본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하위영역별 총점을 원점수로 사용하였다.

아동의 입학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분석하되, 동일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능력간의 독립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입학연령과 성을 독립변인으로,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을 하였다.

### IV. 결과

아동의 입학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분석에 앞서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지능성숙 검사의 하위영역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또 아동의 입학연령과 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 즉 사회적응행동 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하기에 앞서 다변량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종속변인별 변량의 동질성 및 다중종속변인에 의한 공변량행열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전자는 Bartlett-Box

〈표 1〉 입학연령별·성별 인지적 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80)

인지적 능력의 하위영역	입학연령											
	5세											
	남(n=20)		여(n=20)		계(n=40)		남(n=20)		여(n=20)		계(n=40)	
	M	SD										
언어개념	13.50	2.33	14.40	3.71	13.95	3.09	12.80	2.88	15.55	3.44	14.18	3.43
동일성	7.40	2.60	7.40	2.19	7.40	2.37	8.75	2.90	9.00	2.36	8.88	2.61
분간력	6.60	2.44	6.55	2.24	6.58	2.31	6.50	2.52	7.35	1.42	6.93	2.07
유사성	9.25	2.10	9.95	1.76	9.60	1.95	9.35	3.30	10.60	1.64	9.98	2.65
연관성	7.10	2.90	7.25	3.18	7.18	3.00	6.60	3.33	7.94	2.48	7.28	2.98
산수력	7.35	1.84	7.30	2.11	7.33	1.95	7.95	1.67	8.85	2.06	8.40	1.91
기억력	8.50	2.16	8.90	2.17	8.70	2.15	8.50	2.42	9.95	2.16	9.23	2.38
전체 (지능지수)	110.50	12.50	113.25	12.36	111.88	12.35	100.90	15.64	113.50	10.68	107.20	14.68

의 F값, 후자는 Box's의 M값에 기초한 F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었다( $p < .05$ ).

먼저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 전체를 대변하는 지능지수와 사회적응행동검사 점수의 종속성을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를 Wilks검증한 결과, 입학연령과 성 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지만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연령이 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단변량 F검증과 Roy-Bargmann의 단계별(Stepdown) F검증한 결과, 지능지수에는 유의하

〈표 2〉 입학연령별·성별 사회적 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80)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	입학연령											
	5세											
	남(n=20)		여(n=20)		계(n=40)		남(n=20)		여(n=20)		계(n=40)	
	M	SD										
의사소통	35.10	9.06	42.60	5.97	38.85	8.47	42.00	5.07	46.85	5.63	44.43	5.83
일상생활기술	62.10	17.12	72.55	16.86	67.33	17.59	79.20	7.97	82.50	10.01	79.20	9.54
사회화	56.35	10.14	62.95	12.75	59.65	11.85	69.45	5.27	77.85	9.29	73.65	8.58
운동기능	38.25	5.32	38.15	6.13	38.20	5.67	41.25	2.53	44.00	1.92	42.63	2.62
전체 (사회적능력)	191.80	33.82	216.25	34.47	204.03	34.15	228.60	12.18	251.20	22.92	239.90	17.55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입학연령과 성이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종속변인 별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별 두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 차이가 유의한지

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회적 능력 전체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동의 입학연령에 따라 인지적 능력 전체를 반영하는 지능지수는 차이가 없으나 사회적 능력 전체는 차이가 있어 6세 아동(M=239.90, SD=17.55)이 5

〈표 3〉 입학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적·사회적 능력 전체의 MANOVA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다면량 유의성		단변량 F 검증		Roy-Bargmann	
		검증	Wilks	SS <sup>a)</sup>	F	MS	F
입학연령	지능지수	.60	24.77***	437.11	2.62	437.11	2.62
	사회적능력전체			25740.31	34.26***	30065.50	45.33***
성	지능지수	.82	8.20***	1178.11	7.06**	1178.11	7.06**
	사회적능력전체			11068.51	14.73***	5721.70	8.63**
입학연령 × 성	지능지수	.96	1.76	485.11	2.91	485.11	2.91
	사회적능력전체			17.11	.02	420.94	.63

주) 모든 독립변인의 df=1이므로, MS는 SS와 같다.

\*\* p < .01, \*\*\* p < .001

세 아동(M=204.03, SD=34.15)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는 인지적·사회적 능력 전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는 지능지수(남아의 M=105.70, SD=14.07; 여아의 M=226.75, SD=11.52)와 전체 사회적 능력(남아의 M=210.20, SD=23.00; 여아의 M=233.73, SD=28.70)이 유의하게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석한 결과 입학연령과 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주효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표 4〉, 〈표 5〉와 같다.

아동의 입학연령을 독립변인으로 다변량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11개 하위영역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값=.55, F= 5.00, p<.001). 이러한 영향력을 종속변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하위영역 능력에서 유의한 집단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동일성 지각능력(6세의 M=8.88, SD=2.61; 5세의 M=7.40, SD=2.37)과 산수력(6세의 M=8.40, SD=1.91; 5세의 M=7.33, SD=1.95)에서 5세 아동보다 6세 아동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사회적 능력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별 단변량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입학연령에 따라 사회적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표 2〉에서 보았듯이 모든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에서 5세보다 6세의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단계별 F검증 결과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화 능력은 여전히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일상생활기술과 운동기술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단계별 F검증은 단계별로 종속변인간의 공변량의 효과를 제외한 개별 종속변인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같은 결과는 일상생활기술이나 운동기술이 입학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종속변인들과의 공변량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아동의 성으로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표 5〉를 보면, 11개 하위영역들의 중다 종속변인에 대한 성 변인의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Wilks 값=.74, F=2.14, p<.05). 성 변인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위영역을 보면 인지적 능력에서는 언어개념 영역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아(M=14.98, SD=3.58)는 남아(M=13.15, SD=2.61)보다 언어적 개념 관련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사회적 능력에서는 의사소통능력(남아의 M=38.55, SD=7.07; 여아의 M=44.73, SD=5.80), 일상생활기술(남아의 M=70.65, SD=12.55; 여아의 M=77.53, SD=13.44), 사회화 능력(남아의 M=62.90, SD=7.71; 여아의 M=70.40, SD=11.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능

〈표 4〉 입학연령에 따른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의 MANOVA 결과<sup>주1)</sup>

종속변인	단변량 F 검증		단계별 F 검증	
	SS <sup>†2)</sup>	F	MS	단계별 F
인지적 능력	언어개념	1.01	.10	1.01
	동일성	43.51	6.81*	41.63
	분간력	2.45	.51	.18
	유사성	2.81	.53	.39
	연관성	.20	.02	.90
	산수력	23.11	6.22*	15.48
	기억력	5.51	1.11	.47
사회적 능력	의사소통	621.61	14.20***	425.30
	일상생활기술	2820.31	15.22***	316.18
	사회화	3920.00	41.33***	828.89
	운동기능	391.61	20.61***	19.65

주1) Wilks'  $\lambda=.55$ ,  $F=5.00$ ,  $p < .001$ 주2) 모든 독립변인의  $df=1$ 이므로, MS는 SS와 같다.\*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성에 따른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의 MANOVA 결과<sup>주1)</sup>

종속변인	단변량 F 검증		단계별 F 검증	
	SS <sup>†2)</sup>	F	MS	단계별 F
인지적 능력	언어개념	66.61	6.79*	66.61
	동일성	.31	.05	.31
	분간력	3.20	.66	.00
	유사성	19.01	3.61	8.98
	연관성	11.25	1.26	.00
	산수력	3.61	.79	.00
	기억력	17.11	3.43	1.55
사회적 능력	의사소통	762.61	17.42**	505.37
	일상생활기술	1453.51	7.84**	1.56
	사회화	1125.00	11.86**	47.61
	운동기능	35.11	1.85	.08

주1) Wilks'  $\lambda=.74$ ,  $F=2.14$ ,  $p < .001$ 주2) 모든 독립변인의  $df=1$ 이므로, MS는 SS와 같다.\*  $p < .05$ , \*\*  $p < .01$ , \*\*\*  $p < .001$ 

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표 4〉의 단계별 F검증 결과와 유사하게 의사소통능력만이 종속변인 간의 공변량을 제외하고도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능

력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속변인을 중심으로 종합해 보면, 아동의 인지적 능력은 입학연령에 따라

지능지수에는 차이가 없으나 하위영역별로 볼 때 6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동일성과 산수력이 높고, 여아가 남아보다 지능지수와 언어개념 능력이 높았다. 사회적 능력의 경우 6세 아동이 5세 아동보다 사회적 능력 전체, 의사소통능력, 사회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 전체,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적·사회적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에 관련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입학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적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5세 아동보다 6세 아동의 동일성과 산수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을 반영해주는 지능지수에는 연령 차이가 없었다. 또 남아보다 여아의 지능지수와 언어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동일 연령 내 인지적 능력에서의 성차를 t검증한 결과 5세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6세에서는 언어능력과 지능지수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능력에서 우수하다는 Tyler(1965)의 견해(주정일, 1989), 그리고 입학연령에 따라 인지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Andreas(1972; 서옥석, 1991, 재인용), 서옥석(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지적 능력의 하위영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대변하는 지능지수에서 연령차이가 없다는 결과이다. 즉 올해 조기입학한 아동은 6세 입학 아동과 인지적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성에 따른 인지적 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 평가 방법이 과거 학업성취도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다양한 작품과 활동들(portfolio)의 평가와 같은 전인적인 면에서의 평가로 나아감에 따

라(천희영, 1996), 단지 입학초기의 인지적 능력이 학업성취도 자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Crosser(1991)와 서옥석(1991)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이 고학년에서 학업성취가 입학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조기입학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및 전인적인 면에서 학교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보면 입학연령이 5세보다 6세인 아동의 경우 사회적 능력 전체, 의사소통능력, 사회화 능력이 높고, 남아보다 여아의 사회적 능력 전체,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심진섭(1993)이 5세 아동보다 6세 아동의 사회적응 행동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것, 그리고 5세 조기입학 아동의 사회적 적응능력이 6세 입학아동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이기숙 등(1996)의 지적과 일관된 것이었다. 그러나 Spitzer와 그의 동료들(1995) 등이 K학년을 거쳐 1학년이 되면 사회적 능력의 발달 차이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능력의 발달 역시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에 따른 차이 역시 이영자, 이종숙 그리고 양옥승(1987)의 연구 및 Perry와 Bussey(1984, 1989; 심진섭, 1993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시기 아동의 사회적응능력이 남아보다 여아에서 빨리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동일 연령 내에서 성차를 t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5세 남아는 여아에 비해 인지적 능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사회적 능력 전체와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낮으며, 6세가 되면 다른 사회적 능력에서도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아가 입학 전에 충분한 성숙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Uphoff와 그의 동료들(1987)과 남아는 조기입학보다 1년을 늦추어 입학하는 것이 낫다는 Crosser(1991)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남아의 조기입학 여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 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각각 단계별 F검증한 결과 두 독립변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하위영역간

의 공변량을 제거했을 때에도 의사소통능력은 여전히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입학연령에 따른 일상생활기술과 운동기술, 성에 따른 일상생활기술과 사회화능력 각각이 의사소통능력과 최저 .55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전의 보조적인 분석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사소통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여아는 남아보다 인지적 능력에서 언어개념 능력이 높았고 이는 의사소통능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아동의 조기입학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인지적 능력면에서 6세 아동의 수준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적응의 측면을 생각하여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996 학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조기입학제도에 따라 적어도 올해 조기입학한 아동은 일부 인지적 능력을 제외하고는 6세 입학아동과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사회적 능력이 뒤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5세 자녀의 인지적 능력이 6세 아동만큼 초등학교에서의 수학준비가 조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부모가 조기입학을 결정하도록 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조기입학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적으로 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기입학을 시키는 것이 후기에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이 있다는 우려(이기숙 외, 1996)를 부분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시사점은 실제로 본 연구의 5세 조기입학 연구대상 아동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조기입학 아동이 자퇴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조기입학 허용 아동의 6% 가 입학 한달의 적응기간동안 탈락했다는 보도(조선일보, 1996, 4, 13)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립교육평가원의 설문조사(부산일보, 1997, 1, 13)에서 조기입학 아동의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5세 아동의 조기입학 허

용기준과 방법이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물론 이는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무상교육화와 맞물려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소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관련변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실시되었으므로 조기입학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특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시행된 조기입학 허용제도가 갖는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입학연령과 성에 따라 인지적 능력은 차이가 있다. 5세 입학아동보다 6세 입학아동이 동일 성 지각능력과 산수력이 높고, 남아보다 여아의 지능지수와 언어개념 능력이 높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 역시 입학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6세 입학아동이 5세 입학아동보다 의사소통능력, 사회화 능력, 전체 사회적 능력이 높다. 또 여아가 남아보다 의사소통능력과 전체 사회적 능력이 높다.

### 【참 고 문 헌】

- 1)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서.
- 2) 교육부(1993).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I).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3) 김경희(1986). 아동심리학. 박영사.
- 4) 박성희(1986). 자녀의 인지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부산일보. 조기 입학아동 문제 많다(1997, 1, 13).
- 6) 서옥석(1991). 국민학교 입학연령에 따른 학업성적에 관한 의사종단적 조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신혜원, 송혜린, 우현경, 이윤선(1996). 아동의 기

- 질과 사회적응 행동과의 관계. 미인쇄 보고서 (1996년 아동관련 현장연구비 지원 연구), 삼성복 치재단.
- 8) 심진섭(1993). 유아의 인지양식과 사회적응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이기숙, 우남희, 김현자, 김창복(1995).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에 관한 토론회 발표자료.
  - 10) 이길택(1991). 국민학교에서의 월반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영자, 이종숙, 양옥승(1987). 유아의 사회적응 행동 발달 검사지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8권, 1-19.
  - 12) 임연기(1995).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 5.31 교육개혁안 구체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 교육부.
  - 13) 임의도, 이인수, 조석호(1994). 국민학교 1, 2, 3 학년용 지능성숙 검사. 교육과학사.
  - 14) 조선일보. 다섯살 입학(1996, 2, 16). 만 5세 취학 지원 저조(1996, 3, 5). 5세 조기 입학 6% 탈락(1996, 4, 13).
  - 15) 주정일(1989). 유아발달학. 교문사.
  - 16) 천희영(1996). 열린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내용. '96 교과교육(열린교육) 연구 종합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127-140.
  - 17)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과 역할 수용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Baer, C. J.(1958). The school progress and adjustment of underage and overa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 17-19.
  - 19) Barbour, N. N. & Seefeldt, C.(1993). *Developmental continuity across preschool and primary grades*.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 20) Borg, W. R., & Gall, M. D.(1983). *Educational Research*. White Plains, NY: Longman.
  - 21) Bracey, G. W.(1989). Age and achievement. *Phi Delta Kappan*, 70, 732.
  - 22) Crosser, S. L.(1991). Summer birth date children: Kindergarten entrance age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4(3), 17-19.
  - 23) Elkind, D.(1987). *Miseducation*. NY: Alfred A. Knopf.
  - 24) Erikson, E. H.(1950). *Childhood and society*. Penguin Books.
  - 25) Evans, W. R.(1974). School entry age and future adjustment and achievement of inner city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26) Green, D. R.,& Simmons, S. V.(1962). Chronological age and school entrance.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63, 41-47.
  - 27) Ilika, J.(1969). Age of entrance into the first grade as related to scholastic achievement. OR: Oregon State University, Covallis Graduate Research Council.
  - 28) Kamii, C.(Ed.)(1990). *Achievement testing in the early grader*. NAEYC, Washington, D.C.
  - 29) Kurdek, L. A.(1987). Long-term predictive validity of children's social-cognitive assessments. *Merrill-Palmer Quarterly*, 28, 511-521.
  - 30) Sparrow, S. S., Bella, D. A., Cicchetti, D. V. (1985).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Classroom Edition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Inc.
  - 31) Spitzer, S., Cupp, R., & Parke, R. D.(1995). School entrance age, social acceptance, and self-perceptions in kindergarten and 1st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433-450.
  - 32) Sweetland, J. D., & DeSimone, P. A.(1987). Age of entry, sex,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sychology of the Schools*, 24, 406-412.
  - 33) Uphoff, J. K., Gilmore, J. E., & Huber, R.(1986). *Summer children ready or not for school*. Middletown, OH: J. & J. Publishing.